

第21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8.2.12. ~ 2.1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75
II.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77
III.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8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87
2.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189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7
4.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207
V. 별 책 부 록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2월 12일 (화요일) 14시 02분

開會式順(第21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4시 02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 04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2월 12일 (화요일) 14시 04분

議事日程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곽정수 위원 외 5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곽정수 위원 외 5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안접수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과장 이학신

의사과장 이학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전 접수상황 및
도의회 안전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경과보고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전접수에 관한
상황입니다.

●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2008년 2월 1일 곽정수 교육위원 외 5

[제213회-제1차 본회의]

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1회 및 제21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1일 제2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직속기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1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4시 07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2월 13일은 2008년도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2월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
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8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
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곽정수 위원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여섯
명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
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
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
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21세기 국제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 지방자

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육교류 활
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교류협력의 대상을 정하고 자매결연을 체
결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외국 지방자
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
매결연을 체결한 후에는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
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
록 하였으며,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
명무실해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
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
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조정하
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제213회-제1차 본회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하여 왔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에 대한 여비 등 실비 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곽정수 교육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협의등을 거쳐 검토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부웅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 및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박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곽정수 위원 외 5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곽정수 위원 외 5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께서는 전국 직업교육담당관 워크숍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

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13회-제2차 본회의]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폐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시설과장 안세열.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8. 2.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김 부 웅 김부웅

위 원 이 상 일 李相一

의사국장 김 장 한 김장한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8. 2. 12. ~ 2. 14.(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월 12일(화) 14: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2. 12. ~ 2. 14. (3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2월 13일(수) 10:00	<input type="checkbox"/> 2008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본회의휴회
2월 14일(목)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13-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곽정수 위원 외 5인
발의연월일	2008년 2월 1일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3-1
----------	-------

발의연월일 : 2008. 2. 1.

발 의 자 : 곽정수,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 무
(6인)

제안이유

21세기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함(안 제2조)
- 다.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7조)
- 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 사.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9조)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의 제의) ①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의 제의를 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 지역여건, 교육·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교육·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②자료 및 의견교환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교육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강구한다.

③상호방문시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교육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단체대표 등을 상호 초청토록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 등) ①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제8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교육감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결연의 취소)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 12. 20. 법률 제8069호)

부칙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의결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6호)

제15조5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개정 2005.3.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5,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13-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곽정수 위원 외 5인
발의연월일	2008년 2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2
----------	-------

발의연월일 : 2008. 2. 1.
발 의 자 :곽정수,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 무
(6인)

제안이유

- 우리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감사 실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항)
-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를 “감사는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 "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준용) 규정에 의한"을 "위원이"로 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4조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 제37조의 준용)"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과 태 료	비 고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이상	500	
○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	200	
○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	100	
2.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증언거부	5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 ①(생략)</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⑤(생략)</p>	<p>제1조(목적) ①.....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p> <p>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p> <p>②..... <u>감사는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u>.....,</p> <p>③~⑤(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제1항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개정 2005.3.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5,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별첨 4)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8. 2. 13.(수)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 외 6개 직속 기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이재신 원장님, 중앙도서관 조계환 관장님, 학생회관 신용건 관장님, 학생종합수련원 백남권 원장님, 학생외국어교육원 전창동 원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직속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

이 총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에 교육위원님과 직속 기관장님과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을 대표해서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과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더욱 크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

충북교육계도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시고자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6개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교육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충북교육은 내실 있는 발전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6개 직속기관은 실력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 지도성 신장, 지식 정보 제공과 평생교육 진흥,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적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북인재 육성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속기관 전 직원들은 창조적 미래에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자기 희생과 봉사로 열심히 노력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한알의 밑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박상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속기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0분 이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가능한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단재 원장님 뒤에는 혼자 와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이 보고에서는 실무를 담당할 분들이 뒤에 와서 배석을 하고 뭔가 시정할 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2월말 퇴임하시는데 혼자 와 계시면 단재교육원은 안되잖아요?

●의장 성명용

저기 계시잖아요.

●곽정수 위원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김상태 부장님 안 오셨어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수석부장만 참석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수석부장만, 공문에. 하나씩은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곽정수 위원

됐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필

예, 다 참석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성영용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15분간 정회한 뒤에 11시 15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속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정수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곽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이런 보고회를 가지면서 먼저 보고회 성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보고회’ 그러면 여기서 시정되거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연도 사업에 시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을 완전히 제본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서 시정이나 또는 없애야 될 사업이라든지, 또 예산이 과다 투입이 돼서 줄여야 된다는지 이럴 경우에 이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하는 인쇄비를 없애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한번 애기의 초점이 돼야 되겠고.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저는 아까 단재에서 가지고 왔던 이런 것으로 우선 보고회를 한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가감할 것은 가감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것으로 편집이 돼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선 순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되려면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기관장이 바뀐다거나 또는 실무자가 바뀔므로 해서 작년도 게 그냥 그대로 여겨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도 거, 금년도 거 각 기관별로 두 부씩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얼마나 변했나 떠들어 보니까 그냥 잘못된 게 금년도도 그냥 인쇄돼서 들어온 그런 기관이 있고, 그래서 ‘야, 이건 보고회가 좀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뭔가 개선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용과 외부에 나가는 인쇄용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보고회는 그냥 시기나 예산이나 이런 등등이 정확하게 명기가 돼서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커튼으로 가릴 부분은, 대외적으로 가릴 부분은 가리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몇 월 중, 예산은 여기 안 들어 있고, 그러면 위원들이 예

산서랑 전부 견주어가지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보고회를 할 때는 시기나 또 예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돼서 이런 보고서로 같음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유인화 작업을 하는 게 정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에 제가 우리 기업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브랜드인데, 제가 작년도에 학생외국어교육원의 브랜드를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냐하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그때 주문한 게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이 금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이 1년이 걸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바로 당해 연도에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그 기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이게 작년도 브랜드는 “연구개발지원, 실력충북교육”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브랜드는 “실력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이렇게 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이나. 그래서 그 기관의 브랜드는 고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장님들이 한번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셔서 그 기관의 영원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우선 금년도 표지 타이틀 브랜드를 보면 “실력충북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그러면 이 내용만으로 하면 교육과학연구원은 지원만 하는 부서로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주기만 하지 끌어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서 이 브랜드를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실력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지원체제 구축’ 이것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같이 수석부장님들하고 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각 기관이 공히 브랜드를 고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재에도 보면 “함께하는 감동연수, 도약하는 충북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은 “미래창조, 감동연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뭘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각 기관 공히 브랜드를 고정화해서 누가 딱 봐도 ‘아, 이 기관은 뭘 하는 데고,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게 딱 표지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한 것처럼 지금 각 기관의 사업을 보면 시기가 들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종합수련원 그러면 야영수련이 임해수련원 몇 기, 몇 기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 넣을 때는.....

물론, 그것이 여기 들어 있으면 또 편리할 수도 있는데 캘린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캘린더가 필요한 부서가 지금 외국어교육원도 사실은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며칠에서 며칠 사이 몇 기, 어느 학교라고는 지정이 안됐지만 며칠서 며칠 사이는 뭐 수련이 몇 기, 몇 기 하는 것이 들어오고, 또 그 밑에 사업이 겹치면 밑에 캘린더가 들어 있어서 그냥 제일 뒷장에 그거 하나면 딱 보면 ‘아, 이 기관은 언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이 딱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30기 한다고 그러면 머리 속으로 일일이 가늠하지 않아도 그

것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 중에만 하는 그런 사업도 들어 있던데, 그러면 몇 기, 몇 기 하고 방학중에는 수련생이 안 들어오면 방학기간 무슨 고등학교 무슨 1기, 무슨 1기 그래서 캘린더가 부서별로 정해지고 기관장님은 여러 개 부서의 일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합쳐진 하나의 캘린더가 있으면 업무과약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선이 양식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다 적다를 표현하기 전에 국가인수위원회에서 예산 남용 사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CCTV가 2개밖에 없는데 CCTV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테이프를 몇 억을 산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설립이 돼서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못 챙기고 그런 사이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관의 수장님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10쪽에 보면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사

업내용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도 하던 사업이고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초등학교 학업평가는 왜 빠졌느냐.

여기 보면 중학교 신입생 진단평가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로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여기 보면 중학교 1,2,3학년이 들어 있는데 초등학교 부분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과목의 다양성이나 또 계열이나 전문계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은 국민 공통 과정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서는 한번 초등도 내년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업명을 하나 넣어서 실천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11쪽에 중학교 신입생이 현재 6학년, 지금 졸업반이죠. 현재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6학년은 지금 실시가 되는 겁니다. 신입생이 현재 6학년이니까. 이제 2월 14일날 내일 실시가 되는 데, 글썄 전 학년 하기는 저기할 테고, 한 4,5,6학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수 위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3학년도 평가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광정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을 하나하나 날짜가 언제냐, 이게 실현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 사업을 총체적으로 한번 캘린더를 만들어서 시기를 확정할 것은 하고 그러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재교육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재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아마 우리 위원들이 부탁한 것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단재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과정 말씀하셨죠?

● 광정수 위원

예, 그 얘기도 했었고, 거기서 아마 부탁을 했던 것은 신규 교장발령자들의 재교육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 교장을 나가 봤을 때 교육내용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천할 수 있지만, 재무 예산 회계 관계는 잘 모른다, 그래서 신규 교장들을 한번 재교육 차원에서 연수과정을 만들어서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다른 과정을 없애서라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안 들었어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그 CEO 갈등조정능력 향상, 그 직무연수에 거기에 복식부기, 요새 바뀐 회계원리 이런 것을 넣어서 과정을 그렇게 해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 광정수 위원

꼭 좀 재무 회계 예산에 관한 시간을 좀 많이 넣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그 부분은 저도 솔직하게 교장 나가서 모르니까 실장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여,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여? 이거 이 예산 좀 내가 사업을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산 좀 만들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원장님도 교장선생님하실 때 저나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교장선생님 나가시는 분들이 제일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그 부

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연수원에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신규과정은 물론 넣었고요, 여기 CEO 갈등, 이게 교장선생님들 건데 거기에다가 그 과정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회계원리 이런 것을 해서.

●곽정수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단재에 근무를 해서 기획부장을 하다보니까 과정을 기획도 해보고, 실제 운영하는 것을 감독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있을 때 가장 뭐라고 그럴까, 가장 걱정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고 하니 우선 과정개설의 목적성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사선정의 적절성. 그래서 강사를 위해서 과목을 넣는다거나 또 어느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강사라거나 그런 게 아닌 그런 게 필요했었고요, 또 하나는 한번 전국 단위로 일류강사를 모셔보자, 그래서 무슨 장관을 지내고, 무슨 총장을 지내고 이런 이름이 높은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현장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젊은 대학의 조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의 선정이 사실 굉장히 연수원의 생명과 같은 것이어서 저는 그때 그런 것을 연구사들한테 주문을 했었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국단위 강사 D/B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전국 규모 단위의 그런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생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생활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그 활용계획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영어선생님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게 주목적으로 했는데, 영어선생님들이 활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다른 연수 때 외지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숙박, 이번에도 지난 1월달에 한 데도 제천 지역의 여 선생님들이 모텔에서 숙박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또 다방면으로 그 시설이 유휴되지 않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짜고 세우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의 기능이 이제 그곳에서 자격연수부터 여러 가지 연수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연수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주로 방학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간은 아마 행정직, 또는 교장선생님들 자격연수 이런 것이 학기중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은 좀 후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이버연수도 했고, 여기 나와서, 영어 출장 나와서 초등학교 빌려서 하는 그런 연수도 했었고 이제 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단재교육연수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유휴기간의 활용방안으로 지금 아마 영어강사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말고는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그것이 원래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3년 주기로. 그래서 그 외국인 강사 숙소하고 40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로 해서 주로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위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적어도 연 200일 이상은 활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객정수 위원

지금 거기 실수의 수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지금 40명입니다. 2인 1실이 있고, 또 3명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그래서 강사방이 8실이 있고 1인 1실, 그 다음에 연수생들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해서 40명이 1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객정수 위원

1기에 40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예, 그렇습니다.

● 객정수 위원

3층 건물 그거 큰데 그거밖에 안 돼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40명 수용하는 걸로.....

● 객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동률이 높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제가 사실은 그 사업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책 대출업무가 도서관의, 우리가 알던 옛날 도서관의 기능이었고, 요즘은 아마 전자도서관까지 겸하고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외부인에게 연수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냐 하는 게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역시 캘린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또 지금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 코너를 운영한다고 해서 ‘야, 상당히 참 전년도에 예산한 것이 금년도에 구입이 돼서 참 좋구나’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나라가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두 나라로 도서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지금 한두 개 출가해서 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 두 나라 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거에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앞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보고서 내용 중에 시기나 예산명시 이런 것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익년도에 조금 내실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저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책 대여 정도의 기능밖에 못할 것 같아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69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태는 이주민센터 이런 데서 장기대여, 순회문고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00여 권 구입을 했고, 금년도 400은 하고 있는데 우

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여타 태국 이런 순으로 해서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결혼 이주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제가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을 보도에서 접하고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두 나라의 책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권당 1만 5,000원. 좀 비쌉니다, 전부 현지에 교섭을 해서 현지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송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내에는 이러한 도서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아무리 대형 도서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관련자들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비싼데, 금액 자체는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까지 확대되기는 조금 현재로는 어려워서 현재 두 나라만, 이제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독서회원증 통합시스템 구축, 그래서 청주 시내에 있는 도서관과 우리 도교육청의 중앙도서관하고 아마 같은 태그를 가지고서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쓰시겠다 해서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참 발전적인 교류 차원에서 또 이용자의 편의로 봐서 좋은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딥니까?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저희들이 도내에 시청 산하의 시립정보도서관이 있고, 지난해 3월에 개설한 북부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난해 12월달에 기공식을 가진 가경동에 시청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기관이 있는데 주체는 그쪽은 도서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단말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회원증 발급하는 그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의 카드로 되면 한번만 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갱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주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쪽과 같은 시스템의 비품을 구입해서 시청 쪽에 맞추는 겁니다. 거긴 도서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곽정수 위원

아주 좋은 효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학생회관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학생회관 예산 중에 대부분

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영장 운영인데 수영장 운영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 학생회관장 신용건

지금 현재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일용잡급이 19명(강사), 19명인데 저희들 수입이 연간 1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억 230을 예상했는데, 그런데 적자가 1억 4,000정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감님이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4,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북에서 물이 제일 깨끗하고 오존살균기를 2개를 쓰고 해서 약이 덜 들어갑니다, 다른 수영장보다. 그래서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곽정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장사마냥 이익을 남기자는 사업은 아니고, 여하간 적절하게 효용성만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학생회관장 신용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제 시설이 자꾸 남아지면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곽정수 위원

저번에 체육회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소리가 하나

나온 게 뭐냐하면, 강습 위주로 아마 손익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거기 와서 실제로 훈련을 하고 연습해야 될 수영선수들을 소홀히 대우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그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레인을 비워서 그네들이 와서 하고자 할 때는 언제고 할 수 있도록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주가 수영선수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강습이 주가 돼가지고 수영선수들이 와가지고 눈치보고 있다, 그런 애깁니다.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해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관계자하고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 실정 좀 말씀해 주시죠.

● 학생회관장 신용건

지금 저희들이 3개 레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시부터 6시까지 그것을 정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 걱정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만들어내는 거네요?

● 학생회관장 신용건

예

● 걱정수 위원

그럼 제가 자신있게 그 사람들에게 답

변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 학생회관장 신용건

예

● 걱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마 학생회관 사업소가 안전체험관, 박물관, 또 본청 있고, 수영장에 한글사랑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회관도 거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 학생회관장 신용건

글쎄 학생회관으로 편입하려고 지금 조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체육과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이오문화회관 내부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T/F팀을 7명을 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문화회관 내부시설 때문에 지금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5급 1, 6급 2, 연구사 1명 해서 4명이 거기 업무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 걱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릴 때마다 자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있던 데라 잘 안다고 자꾸만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죽 보면 전부 연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학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생종합수련원하고 이름이 수련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의 기관장은 어떤 분이 가 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입니다.

현재의 그 문제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오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다만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교육의 전문성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문직을 보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행정에 대한 경력이나 수련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는 행정관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정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어려운 답변 하셨습니다. 그죠?

●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

예

● 곽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다문화 가정, 가족동행 사랑캠프 이런 것은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지도자 연수가 금년도 역점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작년에 보고회 때도 야영수련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수다라고 말씀

을 드린 걸로, 그래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또 실제 많이 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말씀하실 걸로 알고, 기관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우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금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브리핑해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곽정수 위원님께서 총론적인 부분의 말씀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간단한 세부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 계획 중에 11쪽에 중학교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평가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실시가 되는 거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 김병우 위원

몇 년 동안 죽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평가의 기본 취지는 뭐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기본 취지는 각 중학교에서 반편성 저기로도 활용을 하고, 주목적이 반편성 활용을 하고, 진단평가니까 애들이 학력이 어느 정도 와 있나 진단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아마 반편성으로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 성적의 내신성적이 없죠. 그래서 신입생들을 학급편성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써왔고, 그래서 배치고사라고 이렇게 속칭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보지 않고 학교별로 나름대로 진단평가나 이렇게 해서 반편성 자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것을 집행청에서 일괄해서 출제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학교 짐을 덜어주면서 죽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예년처럼 되고 있는데, 작년 9월인가요 각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모여서 전국단위로 일제히 학력진단평가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금년도에 3월 5일날인가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신입생을요?

● 김병우 위원

신입생 뿐 아니라 모든 학년에.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지금 본청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올해는 서울시에서 아마 처음 출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3월 초에 당장 실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다 예고가 됐을 텐데요.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홍종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홍종설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 5일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표집을 할 거냐, 전체를 다할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성격인지, 또는 전집이냐 표집이냐 하는 것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하는데, 다른 시·도들에서, 특히 그것을 주도한 서울시 같은 데서 굳이 학년초에 그걸 보자라고 하는 데에는 신입생들일 경우에 각 학교의 분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월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보면 당장 내일도 하고, 3월 초에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 신입생들은 학년 말과 입학 들머리부터 시험부담에 몰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지가 학력진단이 특히 분반자료로 쓰는 것이라면 다른 시·도와 일제히 한다는 이 전국단위 평가, 이것을 앞으로 그 자료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원장 박상필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집이 아니라 표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전집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 자료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좀 깊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달에 해오던 숙칭 배치고사 문제들이 문항 출제 사례를 보면 문항수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봐오던 문항수는 보통 교과목별로 25문제 정도였고, 수학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이제 수업시간 40분에 맞춰서 그렇게 문항수를 그 정도로 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는 봐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월달에 보는 배치고사에서는 45분에 33문항 이렇게 봤는데, 학생들로서는 겪어보지 않았던 시간이고 문항수란 말이죠. 그것들을 굳이 그렇게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시간배정이나 문항수를 했던 것은 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단지 무심코 중학교 신입생이니까 중학교 단위에 맞추는 것이었다면 초등학교 수준에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글쎄 그 부분에서도 동감합니다.

지금 33문항, 그 다음에 수학이 25문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실시가 된 지가 금년 벌써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현재는 초등학생들의 기초생활영어, 어떤 이런 게 중점이 되겠죠.

● **김병우 위원**

종래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해온 영어교육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독해 중심이라 독해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화 능력이 떨어져서 영어교육의 모순이 있다, 그래서 조기영어교육을 하면서 방향을 독해 중심이 아니라 구화 중심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3,4학년 과정에서는 아예 읽기 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학년에서 조금 쓰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지도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과서는 없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 **김병우 위원**

영어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놀이나 챗츠나 게임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영어에 대해서, 그것이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목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충실히 해가지고 얼마만큼 중학교 과정의 영어학습을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평가라고 한다면 그 교육과정의 취지나 정신을, 또는 범위를 벗어나는 평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월달에 보는 배치고사 진단평가에서 그러면 영어를 출제를 한다면 과연 어느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지금 영어평가는 원래 작년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출제를 초등 선생님들 중에서 위촉을 하고, 검토위원을 본 연구원에 있는 영어 연구사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검토 위원도 초등에서, 중등영어에서 하지 않고 초등에서 했습니다. 아마 출제가 어떤 기초생활 초등에 맞춰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그 기초생활영어 거기에 맞춰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계성을 따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중학교 교육과정은 그건 모르겠고, 초등학교에서 지

도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평가를 했을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출제를 직접 지도를 하셨던 선생님이 하신다면 그런 교육과정의 취지라든지 현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루 반영을 하셨을 텐데, 요는 이것이 지필평가이다보니까 아무래도 독해력 평가 중심으로, 측정 중심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이 다음에라도 내일 실시가 되면 금년도 실시한 평가문항, 그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예년의 영어과교과 문제도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말 이 진단평가에 영어과목을 굳이 꼭 해야 된다면 그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왜곡시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화 중심의 말하기 듣기 능력을 주로 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을 벗어나서 만약에 독해력 평가 위주로 문항을 출제한다면, 진단평가를 그렇게 한다면 이후 역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전체가 종래의 중·고등학교에서 해왔던 독해력 위주로 쓰기, 또 읽기 위주로 그렇게 왜곡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일 정도 여관에 들어가서 마지막 검토를 한 것 같은데 다른 교과는 그렇지 않

아도 한 3일 정도에, 이틀 정도에 거의 끝나는데 영어는 이틀이 더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니까 너무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자체에서도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어 출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라든지 이런 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병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교과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교육관이 딱 명시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런 염려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년에 출제된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더 신중한 저기를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질을 드린 부분을 이후 점검을 하시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관 방문 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 계획서를 봤습니다만은 이걸로는 좀 알 수가 없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연수원이 그냥 교육연수원이

아니고 단재교육연수원인 이유가, 또 기관명칭을 그렇게 하필 단재를 넣어서 설립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재 선생의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죠.

● 김병우 위원

단재 선생님은 우리 지역이 낳은 근대 교육자이시고, 사상가이시고, 사학자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교육기관에 특히 교육연수기관에 그 분을 교육적 모델이나 사표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경기도의 울곡 연수원이나 또 인근 충남의 충무연수원이나, 강원도의 사명당연수원이나 경북의 화랑연수원이나 그런 연수기관들이 대체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는 지금 그 단재정신이나 단재열이 단지 그냥 명칭이나 현판에만 있고, 그 안에 보니까 단재열 교육자료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수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에는 거의 찾기가 어려워져서 지난번에 그것을 선양하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지난 1월에 한 것을 지금 청주대학의 단재자료관을 기증하신 박정규 교수를 모셔서 강의를 했고, 또 지금 인터넷 고등학교 향토사학가로 있는 선생님도 단재사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1월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각종 연수에 한두 강좌 정도씩 이렇게 포함을 해서.....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충무연수원이나 울곡연수원이나 들어가 보니까 그쪽에는 아예 그 정신이나 열과 사상을 선양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아예 그런 독립 연수활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적극 선양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회관 부분 아까곽정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금년도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완공이 되면 통합 운영을 할지, 분리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회관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돼 있는 건가요?

● 학생회관장 신용건

저희들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7월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넣으면서 분리를 해서 할지, 학생회관에 통합을 할지 그것은 도에서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학생회관쪽에서 관할을 관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별도로 다시 마련하고.....

● 학생회관장 신용건

그래서 지금 T/F팀이 거기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회 추경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되면은, 될 걸로 예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의 설립취지나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따질 때 경제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지만 교육 재정을 들이는 그런 투자사업일 때는 투자의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교육감님께서 새로이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 영어교육에 대한 중대성을 착안을 하시고, 또 사업을, 교육재정을 많이 확대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원의 투자효율성을 한번 제가 짚어 봤습니다.

그 7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교육실적을 교육 연인원 3,040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연인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초등과정 기본 2,700명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과정, 그 다음에 중등 심화과정.

● 김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인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박5일 과정에 2,700명이면 이게 실인원입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예, 전체 인원입니다.

● 김병우 위원

학생 2,700명이 개인이란 말이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예

● 김병우 위원

이게 만약 4박5일이면 연인원으로 따지려면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연인원의 개념이.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1년 동안에 교육한 총 학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3,040명이 왔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2,700명하고 중·고등학생들 160,180 이렇게 해서.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예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초·중·고생이 24만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2만명, 중·고등학생이 6만여 명씩 해서 24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24만명 중에 3,040명이 작년에 이 외국어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갔다는 얘기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예

● 김병우 위원

그럼 이게 몇 퍼센트나 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내보니까 1% 조금 넘어요, 1.2%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우리 교육원이 들인 돈은 얼마나면 예산이 작년에 14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원어민하고 비정규직.....

● 김병우 위원

원어민하고 비정규직은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인건비까지 하면 인건비가 거의 10억 안 됩니까? 거의 8급 3,4천으로 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많게는 한 30억, 적게는 20억 정도로 교육재정이 투자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040명을 말하자면 외국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의 30억 가까이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서재문

아닙니다. 원어민 인건비가 14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원어민은 그런데 정규직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어교육원에 3,040명의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30억 정도의 교육재정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학생당 거의 한번 교육 받는데 한 7,8십만원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 교육성과에 비해서 투자효율성이 있겠는가. 단지 주먹구구로라도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보통 실효성을 거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영어교육은 거의 광풍처럼 일어나고 있고 바람이, 점증하고 있고, 또 새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런 기관을 조금 줄인 규모라고 하더라도 권역별로 설

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기관들도 그런 재정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특히 그것을 앞서갔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것이 취지는 참 좋고, 앞서나가서 그렇게 일정한 효과를 거둬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으로 치면 대단히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교육적 효과도 그 시설이 뭐 정말로 영어체험학습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이기보다는 테마공원처럼 되고 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 정말로 영어체험의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전시성 영어교육기관으로 자칫하면 눈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교육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낙산사 해수욕장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직접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교육원은 우리보

다도 시설이 더 커요. 큰데 원어민 수는 저희보다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6명 정도,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도 6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1기에 보통 9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40명밖에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48명,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규모나 시설 예산에 비해서 타 시·도보다 중복이 배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사람 10명하고 파견교사 10명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도 교육을 해요. 10시까지 학생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는 바람에 밤에도 교육을 하고 또 밤에도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거든요. 식사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 급식소에 일하는 사람도 아침 일찍 와야 되고, 저녁 늦게 퇴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연구사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연구사들이 돌아가면서 10시까지 있어요, 연구사 세 사람이 배치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 파견된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자요. 자야 학생들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고

대 말씀드린 학생들의 기초 영어회화를, 외국사람들하고 말을 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투자비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먼저 동주 교장으로 있을 때 어느 학부모가 필리핀을 두 달 정도를 갔어요. 갔는데, 보통 두 달 정도 가서 교육을 받는데 한 300여 만 원 투자를 해서 거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 갔다 쏟아 붙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국내로 소비하고, 국내에서 그것을 좀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기러기 아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국내로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쓴 비용으로, 외국사람들도 쓴 비용으로 어떻게 채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병우 위원

3,4년 전에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때 취지는 당연히 해외유학의 대체 시설로, 혹시 그럼 해외유학의 욕구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유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쯤은 대체하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박4일, 4박5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시설이니까 테마공원처럼 돼 버렸단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전국적으로는 교육성과는 높다라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봐야 1% 넘는단 말이에요, 1년에 학생이. 그러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중복이 안되고 다 기회를 고루 가져서 돌린다고 해도 겨우 3% 남짓 아이들만 거기 갔다올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도 3%밖에. 그러면 해외유학이나 이런 욕구를 과연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전시성 시설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정말 심각한 우려꺼리이고, 그것만 만들어놓으면 마치 영어교육의 사교육 욕구를 줄일 수 있고, 영어교육의 실효를 크게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되어서 제시되는 면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거기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고 싶어하는데 워낙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못 와서 그렇지, 아마 3주 정도, 2주 정도만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간다면 아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금년도에 왔다갈 때만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오면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학부모들을 올해는 불렀어요, 보고드릴 바와 같이. 그래서 학부모들을 불러서 학생들이 그 후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컴퓨터에 좋은 사이트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안내해 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줘서 거기 왔다가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는 그 추수지도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하여간 조그만 하루씩 남는 기간이 있더라구요, 가서 부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은 최대한도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불러서, 영어선생님들을 불러서 이 분들의 클래스룸잉글리쉬(교실에서 쓰는 영어) 이것을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올해 강화하려고 연수도 더 개설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재정만 넉넉하다면 외국어교육원과 같은 그런 영어교육 시설들을 모든 학교에서 갖추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이나 시설들을 전부 미국 수준으로 방식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아까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을

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영어마을에 투자를 확대하고, 또 아이들을 수용하는 방식은 영어교육 내실화와는 좀 방향이 맞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한 후에 12시 반에 다시 하도록 하시죠?

● 김부웅 위원

저는 조금밖에 안할 테니까.....

● 의장 성영용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부웅 위원

마치고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에 제자 기르는 그런 보람도 없이 정말 큰 몫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위로 한번 제대로 못드려서 늘 직속기관장님들을 보면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침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졌으니 음지에서 비록 고생하시더라도 똑같이 육영사업에 봉사하고 계시다는 위로와 함께 10분 이내로 제가 발표할 내용 자료를 더듬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07년도에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8명 입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해서 본청 때문에 1년 내내 눈부신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을 보시면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사업이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교사들의 호응도 좋다는 생각입니다만 공모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봐줄 사람 접수 주기 위한 비판도 있으니까 선정에 공정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더욱 알찬 제도로 발전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 주문이었습시다.

다음,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중학교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진단평가는 학생들에게 크게 유익하리라는 예견은 하면서도 실행 시기가 졸업 전이기 때문에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전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아무리 비밀로 한다고 해도 상위등급 몇 명이 알려져서 학교간에 비교가 됨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특별과외를 실시하는 부작용도 엄연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3월 입학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고 반편성을 해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하루 정도 불편하시면 그런 불만에서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진단 과목에 영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영어를 꼭 평가를 해야 반편성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학진흥을 위한 관련 행사가 연중 무휴로 추진됨으로 해서 과학 담당자는 1년 내내 행사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서 통합운영으로 시기의 폭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재교육연수원입니다.

'07년도에 교직원 7,191명, 지방공무원 1,665명 등 8,857명을 연수해내는 등 정말 교육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한 바가 대단하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각 부의장님 말씀에

서, 원거리 연수를 하는 공무원과 또 연수기간 중에 자기심화연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숙식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좀 지금의 시설로는 안되겠지만 숙식시설을 확충하고, 또 실비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교직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계획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금년도에 그런 사업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을 좀 확충하자는 얘깁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07년도에 열람실 고객 이용이 60만명 이상 등등해서 총 70만명의 이용고객을 상대로 해서 때로는 서비스를 때로는 연수를 37명의 직원이 담당했으니까 직원 1인당 평균 2만명을 상대한 것입니다. 정말 그 수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관장님, 기관 운영에 큰 애로점은 없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연간 이용자수가 많다보니까,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일반 사용인들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불만요인도 있고 합시다만은 저희들은 우선 어려운 점이랄까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계속 개관을 해야 된다는

거에 따른 직원들의 특별근무, 이런 것이 개인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시기에 대체근무는 합시다만은 자녀들과 같이 못하는 그런 것이 근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층들이, 초등학생부터 또 평생교육의 노년에 이르신 분들까지 배움의 열정으로 이렇게 죽 와 주시는데, 그 분들이 어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환경 시설 이런 측면에서 애로가 없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불만요소, 건의사항들을 즉각 대처하는 그런 행정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편 학생회관에서는요 청소년 교양증진 사업 2만 5,000명, 평생사업, 체험활동사업, 교육문화활동 사업, 하여튼 제가 전부 집계를 해보니까 약 10만명 정도의, 또 20만명 정도의 고객을 직접 서비스하고 연수를 했습니다. 참 수고가 경이롭습니다.

학생회관장님, 학생회관 본관에 강당도 있고, 도서관도 운영해야 되고, 특별 기능실도 운영해야 되고, 공연장도 운영해야 되시고,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수영장, 저는 정말 한 번도 못

가 본 데가 췌습니다.

이런 걸 다 51명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니까?

● 학생회관장 신용건

지금 수영장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분상, 여러 가지 현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들어오면 1,300만 원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게.

● 김부웅 위원

신분상 보장해 주는 문제.

● 학생회관장 신용건

에

● 김부웅 위원

따라서 지난해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의 업무를 좀 세밀히 분석해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보자고 제안했는데, 업무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조사하겠다는 그런 언질은 있었습니다만은 이후 조정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의사국에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주세요. 관리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거. 그래서 차제에 교육문화회관 개관을 계기로 해서 직속기관간 유사업무를 대폭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질의서를 하나 내주세요.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41명의 직원이 진천과 보령 두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야영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또 교사협의회, 임해수련원, 수학여행 등 하여튼 전부 해보니까 거기도 한 7만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왔던 군 그래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직접 찾아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원장님, 가장 큰 애로점이 뭘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입니다.

우리 수련원에 대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 인력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 본원에서 야영수련활동을 할 때에는 성수기에 저희가 비정규직, 일용직 해서 5,6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본원은 그런대로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천 임해수련원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들을 저희가 유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거기에 비정규직이 12명이 있는데 정규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령 현지에서 청취한 건의 중에는 보령 근무 직원들에 대한 지금 주는 혜택이 전혀 매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매력 있는 어떤 시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

에

● 김부웅 위원

학생외국어교육원입니다.

거긴 시설의 빈약, 또는 교육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단기간에 다른 기관처럼 많은 이용객을 불러들일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3,040명 학생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죽 디다 보니까 외국어교육원이라는 간판을 걸어 놨는데 영어교육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중점적으로. 또 지금 새정부에서도 국민적으로 영어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참에 아예 영어교육원으로 간판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간 요즘 영어교육은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똑바로 봐야 할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막대한 국력을 쏟아가면서 교육해야 할만큼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한 필리핀은요 전 국민이 지금 영어로 국어를 쓰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프랑스란 나라는요 그 국민들은 영어를 전혀 안 해요. 나가서도 안 한대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영어교육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을 영재교육 개발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아마 빌게이츠 같은 그런 좋은 두뇌가 개발이 돼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앞으로 좋은 미래로 이끌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부강하면 우리나라 말 배울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억측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다국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원으로 해서 외국어교육원 간판에 걸맞게 다른 외국의 말도 교육하는 게 어때냐라는 말을 드리면서, 약속한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수웅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네,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각 기관에서 주신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관별 청

사진을 보내 주신 것을 보면서 참 노고도 많으셨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준비했던 것은 2007학년도에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문제점으로 지적 돼서 여기서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여쭙 보고 대화를 하고 싶었었는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만 드리고, 한 기관에 하나 정도씩만.....

저 공부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한 가지씩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여쭙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과학연구원과 단재교육연수원 공히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획서 교육과학연구원 9쪽을 보면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현장 협의인데 연구업무를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부 맡고 있죠? 사실, 연구학교 지도, 그렇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지도는 저희 연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냐면 학교 연구나 개인 교사 연구라는 게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엄연히 그 목적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교육 본질적인 면에 좀 뭔가 크게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연구 학교를 형식상으로 전통적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연구를 담당한 학교나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명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한번 생각해 봤는지.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학교 교사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일정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 소명 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원의 연구사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와서 1년 반 동안 들은 얘기가 장학사들 얘기가 똑같은 전문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더라 나는, 아주 안타깝더라 그 말입니다. 하는 업무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교육연구사들이 훨씬 더 고생스럽고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적인 지원이나 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사들의 그런 자체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혹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만일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공감하시고 원 자체에서 신규로 오는 연구사들에 대한 어떤 각오나 이런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근무하는 연구사들이 서로 상호간에 자체에서 어떤 보람과 긍지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관운영 방침은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혹시 두 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공감하시는 내용이나 어떤 결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입니다.

지금 서수웅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6개월 직속기관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직속기관에 제가 단재에도 있어봤고, 연수원에도 있어봤습니다만은 직속기관의 전문직들이 다른 시·군에 근무하는 장학사들보다 어떤 자긍심에 관한 문제, 지금 아까 서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학교 운영 문제, 제가 두 가지를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어제 답변이 왔더군요. 연구학교 운영 문제를 제

가 건의를 했고, 또 저희 연구원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과정에 1,110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수, 정보연수 이래가지고 1,110명의 연수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연구학교 운영문제도 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연구학교 문제가.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이 지도도,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연구원의 연구사들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도에 가서 가지고 가면 도 장학사들은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일선에 있는 현장 연구부장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이거 어느 배를 쫓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학교 문제를 도에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연구원으로 일임을 해 주든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 건의할 때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니까 교육감이 갖고 지정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일임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종전대로 하자 그래서 하 여튼 연구학교 운영 문제, 보고서 내용만은 연구원에서 하고, 모든 행적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하겠다 그래서 연구사들이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연구학

교에서 어느 연구사 지도를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연구사들에게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재교육도 시키고, 자기연수도 하도록 격려도 하고 이렇게 연구사들의 근무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분 나쁜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거기서 근무하고 나온 분들이 “거기는 맨날 편하잖아” 이렇게 하는 풍토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충북에 발전 없습니다. 연구사로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거쳐 나온 친절에 “참 고생한다, 거기 고생 많지” 이런 풍토가 되도록 직장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예, 알겠습니다.

자체에서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자체연수도 강화하고 사기진작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여기 직속기관장님들이 계신 교육기관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추억을 심어주는 데는 학교 현장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려다보면 굉장히 많은데 한 기관에 한 가지씩만 제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여기 죽 보다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업무추진 계획을 봤어요. 생애중심 단계별 연수과정 개설, 생애중심,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애중심 뭔가 설명이 자세하게 있는 것은 없지만 느낌으로 느낄 때 ‘아, 이거 교직생애 40년, 임용전, 또는 임용후, 그 다음에 어떤 몇 년 됐을 때 생애 과정 과정별로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이런 연수를 한다는 얘기구나’ 그런 것을 느껴서 딱 보니까 기왕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이런 생애연수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 안내가 돼서 ‘아, 나도 몇 년 있으면 저런 것을 받았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제목은 있는데 뒤에 여기 뭘니까 프로그램에 보면 연수과정에 보면 그게 안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생애연수를 따로 안 한다면 비교란에도 생애연수 몇 단계, 몇 단계 이렇게 해주면 기왕 이런 멋있는 말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대비하는 사람이나 외부인에게도 서비스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입니다.

지금 그 용어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임용전 교육, 그것이 이제 직위별로 부장교사 때, 뭐 교감 때 해서 되고 있는 건데 그 요목의

과정에다가 그런 것을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 멋진 말을 과정에 안 넣어놨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5번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대상이 청주시 및 청원군 내 아파트 40개 지역,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청주시나 청원군 같은 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더 유리한 애들인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운송수단을 가지고 한다면 소외지역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중앙도서관장 조계환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혜택 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만든 지금 버스 두 대로 풀가동을 쉬는 날 없이 주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과 버스의 대수를 가지고서 청주시내를 돌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청주 청원을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 하기에는 청주시내의 인구수가 많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또 시·군마다 지역 도

서관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장비와 시설로는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수웅 위원

얼핏 보기에는 가까운 데보다는 소외지역에 혜택을 주면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그래서 이게 아파트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청주시내 도서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밀집 군에서는 일일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학생회관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것을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겁니다.

12쪽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에서 그 방법하고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청주, 청원 지역 단체 체험학습, 초등 5학년 1,000명이었는데 이런 체험이 지역으로 확대한다거나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되는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학생회관장 신용건

학생회관장 신용건입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연구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생 이동문제가 있어서 청주, 청원 지역은 한글사랑관에 와서 단체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체험관을 못 와 보는 아이들한테 어차피 교통을 하는 거라면 조금 확대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학생회관장 신용건

예, 연구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종합수련원인데요 맨 뒤쪽 20쪽 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얘기인데요 마침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보면 참가대상 선정은 1개 지역 교육청을 선정하여 다문화 가족 90명 정도라고 했는데,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그런데 다문화 가정을 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그래 전체적으로 터놓고 희망을 받는다든지 전 시·군 다 터놓고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한 개 교육청만 하는지,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건지, 또 다문

화 가정만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할 때가 듣기로 다문화 가정에서 기피현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피현상을 있으면 어떻게 해소했으며, 기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는지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바다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내에는 약 700여 명이 산재해 있는 걸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의, 또 다국적 학생들간에 문화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첫 해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적은 그런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이런 데 조언을 받고, 또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첫 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동양권 학생들이 산재돼 있는 지역교육청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기피현상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되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와 비슷한 그런 나라의 학생들을 초청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이게 다문화 가정 행사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어떤 행사를 제가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만 빼간다고 그러면 또.....

요새 학교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불우학생 돕기 해서 “너 나와” 그러면 싫어해요.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있으니까, 첫번 행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시사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

예, 알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맨끝에 12쪽입니다.

급식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에서 세번째 식중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전년에 했던 사례나 앞으로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례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선학교는 보건교육 계획서에 의해서 환경오염 측정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런 것도 있고, 또 식중독 예방 같은 것을 위해서 아이들이나 급식하는 사람들이 손소독기를 비치하겠다는지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도 혹시 각 기관 공히 다 해당되는 것일텐데 우수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특별한 우수사례는 없고요, 우리는 학생들을 각지에서 데려오고, 또 사고가 나면 절대 안되고 그래서 위생점검, 점검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 서수웅 위원

알았습니다.

각 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만의 하나 사소한 사고가 나면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기관에는 그러면 환경오염 측정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없어요?

(관계관 석에서 “직속기관에는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안 하죠? 그런데 일선학교는 그거 한번 검사하는데 작은 학교 예산이 65만원, 그리고 큰 학교는 110만원 정도 가요. 앞으로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여쭙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명용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깊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08년도 특화사업으로 조화로운 학력신장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우수 교수학습자료 제공으로 최적의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또 고입연합고사 시행 방침에 따른 자율학력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 교육연구 활성화 및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눈앞에 다가와 있

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결국 도별로 어느 도가 학력이 높으나 낮으나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교육강도, 전국의 어느 시·도에 비교해도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이래 놓으면 학생 교육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대도시로 옮겨가려고 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자존심을 걸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좋은 자료를 개발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공히 전국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학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계교육연수원에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교원연수과정에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는 전통 택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통문화예술 신장 차원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는데 타 시·도보다 오히려 본고장인 우리 도에서 활동이 좀 둔화돼 가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러합니다.

충주에는 인간문화재로 정경화라고 하는 분이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주에 택견연수관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타 시·도에서는 택견의 연구와 지도 보급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택견의 본고장 충북이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자격연수 시에 오후 시간이나 또는 어떤 강좌시간, 특강을 넣어서 택견 지도 보급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사를 그 사람들을 몇 시간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해서 선생님들이 방과후나 또는 체육활동에 좀 활용을 하면 저변확대도 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주중학교에서 집단체조로 택견을 했는데 그게 도민체전이나 뭐 이런 체전에 꼭 나가서 시연을 했는데, 좀 귀찮고 경비가 많이 드는 관제로 다 폐쇄해 버리고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좀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학생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과거에 우리 교육시설이라고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모든 교육시설은 주민과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주에 공설운동장을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놔는데 1년 열두 달 문을 닫아 놓고서 활용을 안 합니다. 1년에 몇 번 선수들 시합 있을 때만 합니다. 그래 몇 번 내가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구경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 잔디가 망가지고 그러면 수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엘리트 몇 명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퍼놓고 보느냐. 몇 년간 투정했는데 작년부터 전부 개방을 합니다. 그 우레탄 깔아놓은 좋은 시설도 저녁 요새는 5시부터 9시까지 모든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아주 저녁에 대단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 무릎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권유하는 게 수영을 하라고 권한답니다. 그런데 마땅히 시골사람들이 어디 가 돈을 내고 수영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청주시내 우리 수영장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 보니까 적자가 난 것도 아니네. 그 운영비가 9억 1,321만 4,000원인데 수입증대 목표액이 11억이나 돼요. 그러면 그거 단순비교를 해보면 적자도 아닌데, 비록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이 연세 든 분들이 와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기여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아까 광정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은 “아, 애들 선수들 활용도 못하는데 왜 노인네들이나 와 가지고 저렇게 강습이나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되면 국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운영비, 수입증대만 급급하지 마시고 가능한이면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도 이 수영장이 체력단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 학생회관장 신용건

학생회관장 신용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스장도 만들어놓고 지금 강습은 젊은 사람들이 강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들이 아쿠아빅이라고 해서 일반 노인들 관절염 환자들이 물 속에서 걷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상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거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버스를 없애면 한 1억 4,000 마이너스 나는 돈은 해결이 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계속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 이상일 위원

저도 권장 말씀드리는 게 도 본청에서 상의해서라도 부족한 돈은 지원을 하더라도 그거 폐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개발의 주역들인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활용하는 거 다만 돈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제고해 주시고 좀더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회관장 신용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수영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 사실은 다이빙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빙장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수심이 5m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빙하는 사람은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타 도에서도 연습하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돈은 전혀 없고 거기 물값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 그것만 일반 수영장으로 하면 적자가 안 납니다,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지을 때 전국체전을 할 적에 학생들, 선수들을 위해서 도청에서 대고 해서 진 것이기 때문에 3레인을 할애해서 1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 선수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용객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 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계획을 대비해서 해 주신 부분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한두 군데가 2007년도 업무실적이 없거나 조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업무추진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 2007년도 업무수행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같이 해 주면서 2008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넣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이 우리 충북교육을 고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기관별로 몇 가지씩만 당부 말씀 겸 희망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중등교육과에서도 또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 협조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만은 좀더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아까 이상일 위원님께서 택견 얘기하셨는데 거기 국궁장이 있는데 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분 동호인들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국궁은 우리 전통무예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청주에 우암정 같은 데 협조를 하게 되면은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단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육받는 원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이 국궁에 대한 맛이라도 보이고, 우리 전통무예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바람을 얘기드리고요, 전에 여기 같이 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곽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되는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 교육과정에 대한 연찬회 정도, 업무에 대한 연찬회 정도, 그 전에 발령받았던 사람들도 같이 하면서 업무의 연

관성이라든지, 대부분 지역교육청의 업무는 대동소이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선 학교에 있다든지 학교에서 책임을 맡고 교장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간다든지 교육과장으로 간다든지, 또 행정실장 맡고 있다가 관리과장 맡게 되면은, 물론 업무능력이 출중하니까 업무수행을 다 잘 하겠지만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나마 연찬회 정도 해서 업무협조라든지 조금 교육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종합수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이들, 부모들이 대개 우리 문화를 모릅니다, 우리 한글도 모르고, 우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변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안 변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나라 말 쓰고, 그 외국인들은 우리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하는 우리 문화 교육, 한글도 좋겠고, 일반 우리 예절도 좋겠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다고 하면 적용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청의 외국어교육원 관계요, 이전하게 되면 거기 외국어교육원이 들어온다는 얘기 있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학생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을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을.....

● 의장 성영용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에 관한 부분을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국어교육원에 계신 분들 중에 영진외국어교육원이라고 대구시에서 직영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미국 어디더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서 시설이나 운영면이나 강사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관계가 여태 가본 중에 가장 출중합니다. 한번 교육원에 계신 분들 견학 가시고, 교육원이 확장되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견학도 가시고 하는 게 어떨까 하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종합수련원에서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스타일의, 지금 중등과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같이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 수련원에서 학부모와 함께 한다든지, 상담교사와 함께 한다든지, 비뚤어진 학생이 복학하는 학생들, 애내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지금 15명인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기관보다도 내부에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부분을 종합수련원하고 학생회관 부분은 저는 경제적인 면을 굉장히 따지는 편이니까 손해보지 않도록 열심히 잘 좀 해주세요.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만 운영하면 몰라도 일반 대중도 같이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면서 무제한으로 거기에 교육비를 갖다가 거기에 봉사식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 운영 관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적인 실천 의지로 올 한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훌륭한 교육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종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 출석공무원 : 6명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필,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재신,
중앙도서관장 조계환, 학생회관장 신용건,
학생종합수련원장 백남권, 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전창동.

